10
vol.557

월간 내일

청년특별대책

모든 청년들이 웃는 그날까지 점핑 점핑!

가수 최예근이 참여한 청년 기획 인터뷰는 20p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Catch your youth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SSAFY와 함께 가요 미래로!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갯마을에서 차차차
짠내 가득 어촌살이, 제법 할만한가요?

월간 내일

10
VOL. 557

표지이야기

모든 청년들이
웃는 그날까지
점핑 점핑!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57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04

Catch your youth

행복 일터

04 **Intro**
Catch your youth

08 **Topic**
with COVID19
청년고용 동향 어떤가용?

12 **System**
고용노동부 청년특별대책 돋보기

20 **People**
우리 청춘에 번호를 매긴다고요?
가수 최예근 x 청년 3인 인터뷰

희망 일터

28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SSAFY와 함께 가요 미래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32 **굿&굿 오피스**
직원들의 퇴근 후
삶까지 생각하는 기업
-풍림무약주식회사

36 **인생 2막**
금융권 최전선에서
정년없이 일합니다!
-빈원호 재무 컨설턴트

40 **청년꿈터**
일본어 통번역가가
디자인은 왜 배우냐고요?
-김세연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44 **내일잇슈**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8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60 **미디어 속 노동읽기**
갯마을에서 차차차
짠내 가득 어촌살이, 제법 할만한가요?

64 **JOB툰**
찬란한 우리네 인생·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66 **직장탐구생활**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유형별 직장인 커뮤니티 살펴보기

68 **고민타파**
꽃보다 청춘이라던데...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72 **직장인 건강상식**
치아를 튼튼하게 지키는
네 가지 방법!

74 **주말에 뭐 할래?**
10월 영화·도서·음반 추천

80 **내일 백일장**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82 **애독자 퀴즈**

Catch your youth

✳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영혼에 그늘을 드리운다"
소설가 김연수 <청춘의 문장들>의 문장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청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앞에서도 청년들이 꿈꾸기를 주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늘 청년들의 곁에서
비빌 언덕이 되고 싶습니다.

청춘이란 정의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20대나 30대 같은 물리적인 나이가
청춘의 기준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꿈을 꾸는 한
언제나 청춘이라고 말하죠. 꿈을 꾸고 새로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춘다운 모습입니다. 청춘은 어쩌면 한계가
정해진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형보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형으로 쓰기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청춘을 살기에 너무 팍팍한 요즈음입니다. 자아실현을 하고 꿈을
쫓기에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청년이 많아졌죠. 취업의 문은 어느 때보다도
좁아지고, 신입보다는 경력 위주의 채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자영업이나 예술가를 꿈꾸는 이들은 수익 창출이 어려워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6일 '청년특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신설하고,
구직 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을 연장했으며, 해외 취업 지원 확대 계획도 제시했죠.
그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지원 등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지원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10월호 <월간내일>에서는 '청년특별대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BUSINESS
GOALS
90

글 편집실

with COVID19
청년고용 동향 어떤가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청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청년고용률과 실업률, 월별 취업자수 등
요즘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처한 고용 상황은 어떤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eboard.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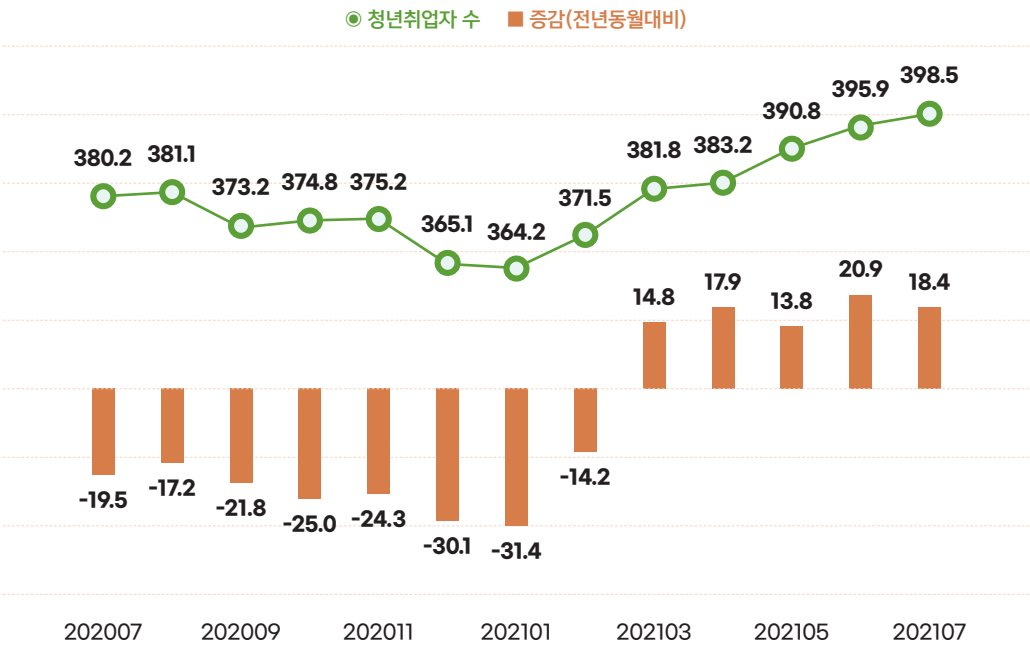
청년취업자 수	청년실업자 수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398.5만 명	30.8만 명	45.5%	7.2%

기준: 2021년 7월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증감 수치를 기록하던 월별 청년취업자수와 청년고용률은 올해 3월부터 조금씩 개선되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3분기와 4분기에도 긍정적인 통계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 월별 청년취업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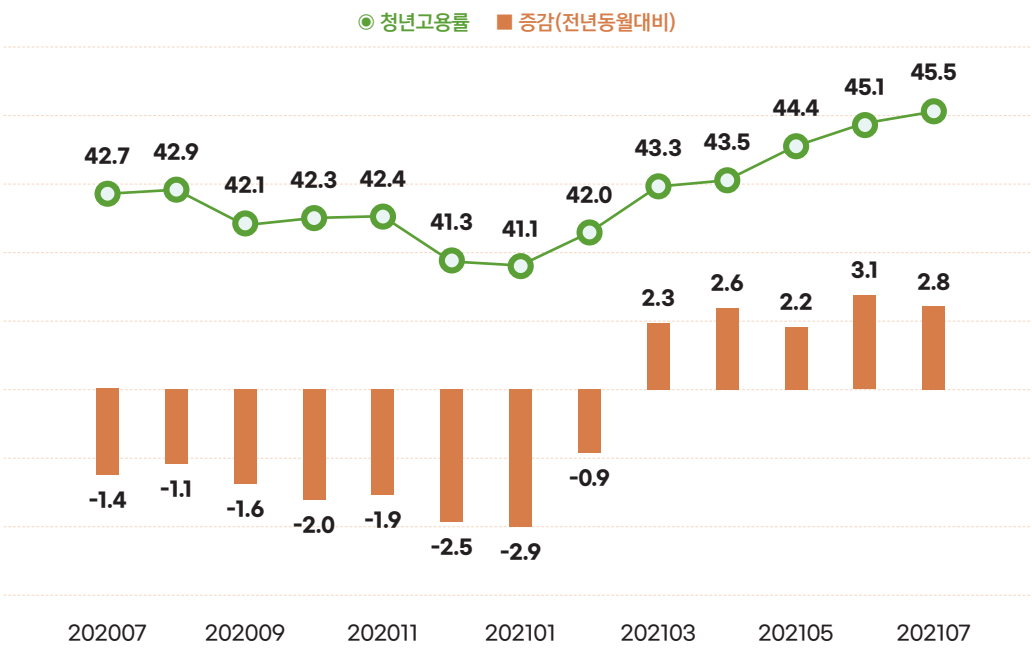
단위: 만명, 증감(만명)



지역별 청년고용률과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청년취업자수도
대체적으로 증감률이 개선되고 있답니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더 청년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힘쓸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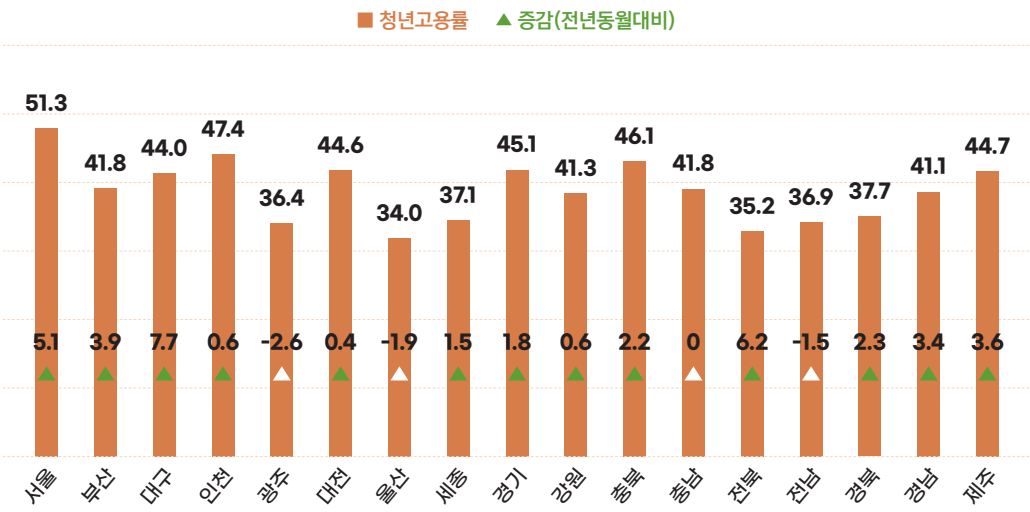
| 월별 청년고용률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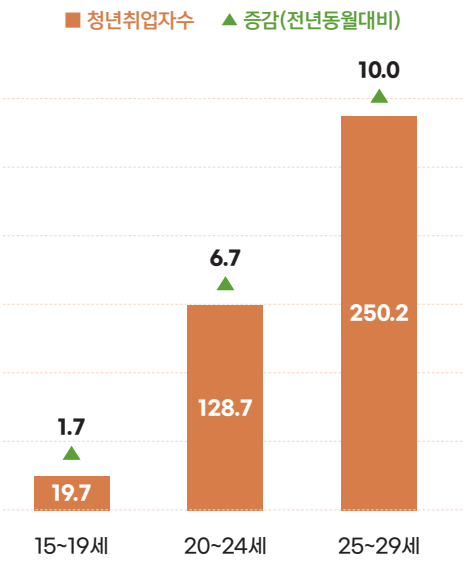


| 지역별 청년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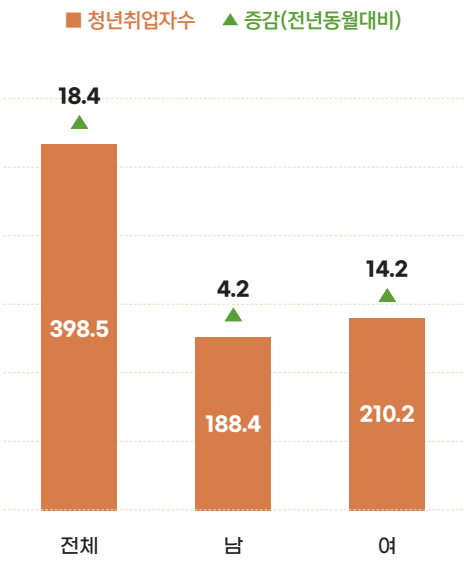
단위: %, %p



| 연령별 청년취업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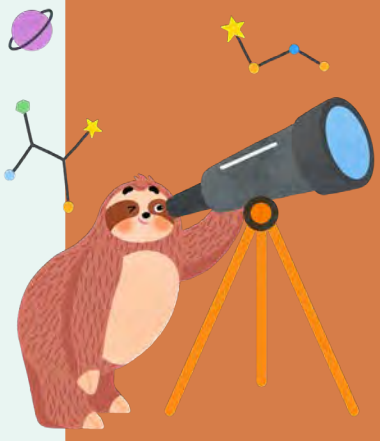


| 성별 청년취업자수 |



단위: 만명, 증감(만명)

글 편집실



고용노동부 청년특별대책 돋보기

코로나19 위기 이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구인이 힘든 사업주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 청년특별대책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등.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을 소개합니다.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❶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 명, 고졸자 포함)

Before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이 '21년 종료 예정으로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감안,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9만 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21년 5만, 1차 추경 +6만) 등

After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5인 이상)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24년) 사업을 신설, 14만 명 취업 지원

* 청년(고졸 청년 2만 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 원 지원

❷ 민-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규 추진

Before 채용규모 축소,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

*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전체/대졸이상): ('20) 10.0개월/7.2개월 → ('21)10.1개월/7.7개월
* ▲채용 시 평가항목 중 '직무역량' 비중 52.1%('21.2월 사람인) ▲'21.上 채용트렌드: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 경력직 채용(20.3%) 등('21.3월 한경연) ▲수시 채용 시 중요한 역량: 직무관련 경험(47.4%), 직무 관련 지식(15.8%) 등('21.2월 진학사)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①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②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확산
  ⇒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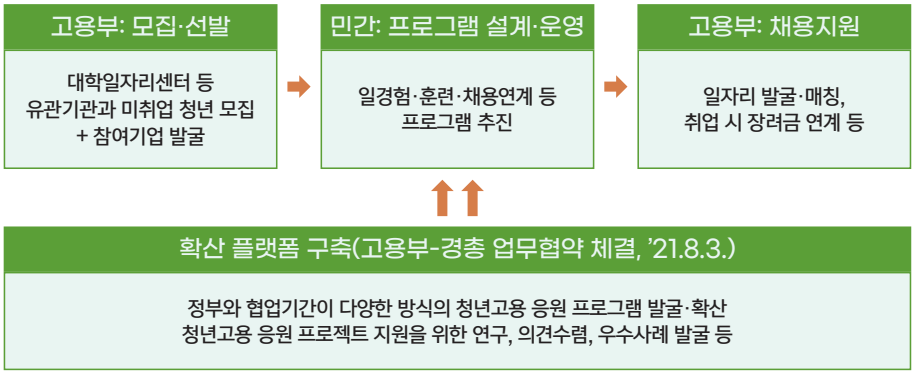
After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

* (기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정부) 모집·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추진비용·인프라 등 지원
** ('21년) 기존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등) 요건충족 시 운영비 지원→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신설 170억 원

기대효과 민간 주도로 보다 많은 청년에게 수준 높은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가능성 제고

*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일부 대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확산 및 효과성 제고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주요내용 >



<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

1유형(직무훈련)	▲취업준비생 대상 역량향상 교육 제공
2유형(일 경 험)	▲취업전략 컨설팅, 직무체험, 인턴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3유형(채용연계)	▲대기업 인프라 활용 교육 제공, 협력사 인턴·취업
4유형(청년공감)	▲구체적 채용정보 명시, 면접전형 상세결과 등 공개, 현직자와 소통기회 마련 등
5유형(기업자율)	▲기업별 특성 및 인적·물적자원 등을 고려한 창의적 지원 프로그램 발굴·추진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❶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Before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종료 예정 → 종료 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

*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세~34세) 고용의무 부과

After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보장('21.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8.)

❷ 해외 취업 지원 확대

Before 그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축소 운영

* 지원내용: ▲일자리 맞춤형 교육제공 및 해외취업 연계 ▲민간해외취업알선,▲해외취업정착지원금(1인당 신흥국 6백만 원, 선진국 4백만 원) 지원 등

** 인원(명): ('19년) 8,900→ ('20년) 7,750→('21년) 7,682

After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 지원

❶ (신규 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Before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20년 성과) 일반중소기업 취업청년 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음,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목표(신규 10만 명)가 旣 조기마감(8.6.)

* 지원내용 : 2년간 청년(300만 원)+기업(300만 원)+국가(600만 원) → 만기시 1,200만 원 수령

After '22년 신규 7만명 등 36.7만 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하여 지원필요대상에 집중 지원

* 지원규모: ('21년) 신규 10만 등 35.2만 → ('21년 추경) 추가 2만 → ('22년) 신규 7만 등 36.7만

** 중견기업 지원 제외,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등

*** '22년 기업자부담 비율조정: 30인~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진입준비 청년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❶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15→17만 명)

Before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After 청년 재산기준 상향,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 ('21년 15만 명→'22년 17만 명)

* (종전) 재산 3억 원 이하,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개선) 재산 4억 원 이하,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

** '22년 국취 1유형 청년 선발형(구직촉진수당 지원)+2유형 청년층(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인원 : 25만 명

❷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0.5→0.7만 명)

Before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일부지역(인천, 부산 등 14개)에서만 시행되어 참여가 제한적

* ❶구직단념청년 발굴 → ❷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이수시 20만 원 지원) →❸ 이수시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After 올해부터 구직단념 청년 외에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22년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5천 명 -> 7천 명)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중위소득60%이하)가 받는 혜택은? >

☞ 구직의욕 고취 → 취업역량개발 → 취업성공(1년 장기근속)시
최대 '470만 원 + α' 수준 실질소득 증가 + 기타 취업지원·일경험 서비스

구직의욕 고취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취업지원		취업성공
청년 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 (2~3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 성공+근속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소득·재산 요건 충족시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자치단체 (청년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❸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

Before 기업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여 구직정보를 취득하는 상황

After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

* ①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②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③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

❹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

Before 그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견학, 회사소개 등)을 통해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참여인원: ('17년)10,492명→ ('18년)10,229명→ ('19년)10,119명→ ('20년)7,804명

After 청년수요를 반영, 미니인턴 실습(최대 2주, 프로젝트 참가), 모의면접 기회 제공, 실전면접을 통한 채용연계 등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

❺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5.7→9.9만 명)

Before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지원 중이지만 기업 수요 대비 디지털 인력 공급 규모**는 부족

* 멋쟁이사자처럼 등 청년선호 민간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지원→실제 직무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 제공, 국비지원 사업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디지털 직무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크게 증가

After 현장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팅** 확대 ('21년 본예산 5.7만 명 → '22년 9.85만 명)

* K-디지털 트레이닝: ('21년) 1.7만 명 → ('21년 추경) +0.7만 명 → ('22년) 2.85만 명

** K-디지털 크레딧 : ('21년) 4만 명 → ('21년 추경) +2만 명 → ('22년) 7만 명

❻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Before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일경험을 제공 중이나,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에 참여하기를 선호

After 일경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 확대('21.하)

* 기초교육-직무체험 결합 일경험과정 마련, 국취참여자 자격·역량 등 감안하여 적합자 연계

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Before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예정자(대학교 4학년) 외 재학생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대상) 15세 이상 구직신청자(대기업 재직자·공무원·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등 제외)(내용) 5년간 300만 원~500만 원 훈련비 지원

After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까지 확대('21.하)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❶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현장 지원

Before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정채용 원칙이 확립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평가도구 개발*·보급**을 확대 중

*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57개 채용분야 중, 103개 채용분야 개발 완료('20.7월말)

** NCS 홈페이지를 통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가이드북 제작·배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등

After 자율적으로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능력중심 채용 모델 확산

* 채용모델 추가 개발(4개), 중소기업 200개 대상 밀착형 채용 컨설팅 등 지원

❷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Before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 등 반영한 직종별 표준계약서(現 17개)의 보급 지속 확대 필요

* 업무내용·보수지급방식 등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After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제정('21년 하반기~)하고,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등 청년선호 직종*별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추진

* (예시) <방송> 스타일리스트, 작가, 조연배우 등 <문화예술> 기술 보조, 작가 등 <기타> 게임개발자, 프로그래밍, 헤어디자이너, 골프캐디 등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

❶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

Before 청년정책 정보가 중앙부처·지자체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정보검색이 불편하고, 탐색비용 발생

* 現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집·탑재시 많은 기간 소요→ 실시간 정책반영 곤란

After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편, 급변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검색 불편성 해소 및 탐색비용 절감

*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체계적인 오픈(OPEN) API 서비스 구축·운영으로 정보수집·최신화 등 부처·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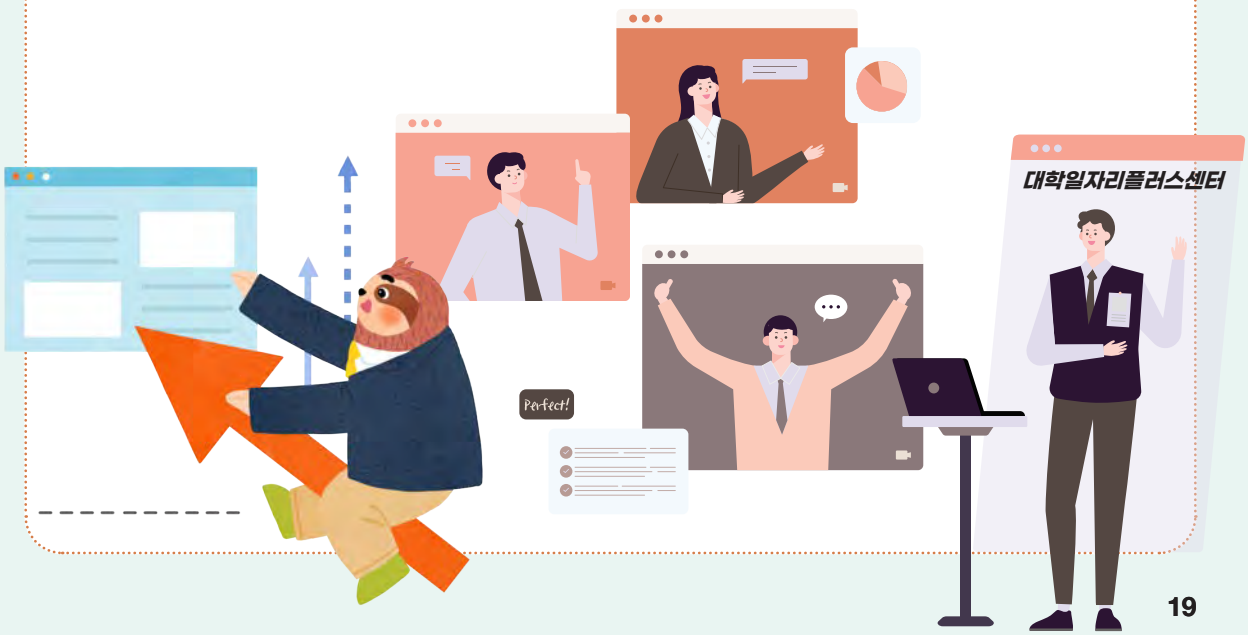
❷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

Before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중이나, 지원대상이 주로 재학생이고 진로취업지원 외 서비스 필요

After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재학생→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 및 기능 확대(21년~)

* ①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 기업정보 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②진로·취업지원 상담 중심 → 심리,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 추가

** ('21년) 대학일자리센터 84개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6개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개교



글 진행 권찬미 | 사진 박찬혁 | 영상 류한승

우리의 인생은 때로 숫자로 평가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라면 토익 점수, 학번, 나이 등의 숫자가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20대 중반을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숫자를 부여했을까요? 또 각각의 청년들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에 23호로 출연했던 가수 최예근과 세 명의 청년들의 대화를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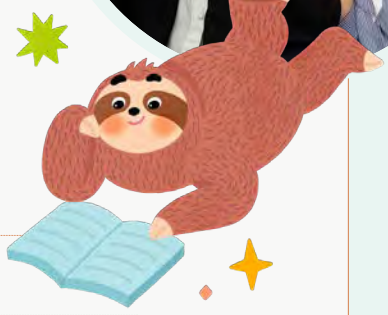
우리 청춘에 번호를 매긴다고요?

가수 최예근 x 청년 3인 인터뷰

*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켜 촬영되었으며, 1:1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Scene 1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0호

[예근] [선우]



[예근] ▶ 안녕! 너는 0호구나. 왜 그런 숫자를 적었어?

[선우] ▶ 나는 이제 막 취업준비를 시작해서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졸업 전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했지만
막상 취업준비생의 신분이 되고 나니 0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숫자로 0을 꼽았어.

[예근] ▶ 정말 솔직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 숫자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선우] ▶ 나도 너처럼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본가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인턴이나 대외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
0에서 꾸역꾸역 무언가를 쌓아 나가려 노력하는 중이야.

[예근] ▶ 그렇겠다 정말. 막상 취업 시장에서 0으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갈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에너지와 열정이
너무 좋은 걸! 곧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우] ▶ 정말? 고마워. 나도 0부터 열심히 쌓아 올려서,
어딘가에서 너랑 다시 멋진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예근] ▶ 그래, 0이 아닌 100, 1000, 10000%의
너를 세상에 드러내어서 꿈을 실현하기를 응원할게!

[선우] ▶ 너도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지만,
너의 노래로 인해서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계속 좋은 노래를 불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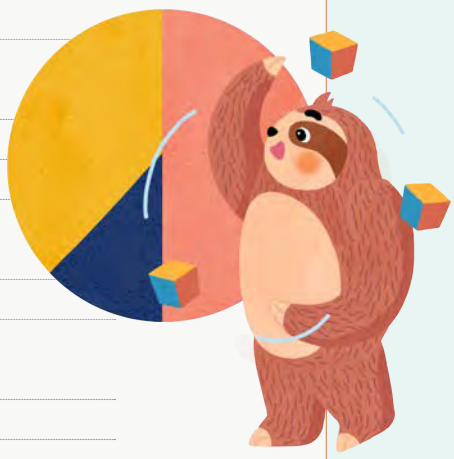
Scene2
6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 16호

[예근] [고은]

[예근] ▶ 안녕! 너는 16호구나. 왜 그런 숫자를 붙였는지 궁금해.

[고은] ▶ 내가 16학번이거든. 그리고 졸업을 하지 않고 6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스스로 16호라고 숫자를 붙여 봤어.
친구들은 초등학생이냐고 놀리기도 해.

[예근] ▶ 와, 6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구나.
왜 오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고은] ▶ 취업준비를 하다 보면 졸업생보다 재학생의 신분이
더 나은 경우가 많더라구. 하지만 이제 진짜 졸업을 해야 할
타이밍이 되어서 두렵기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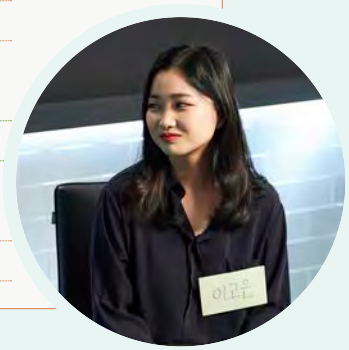
[예근] ▶ 그런 두려움을 나도 느낀 적 있어. 나도 싱어게인에서 23호로 살면서
그 숫자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숫자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거든.

[고은] ▶ 너도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은 어때?

[예근] ▶ 하지만 번호를 벗어 던지고 내 이름으로 활동하는 지금은 행복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말야.

[고은] ▶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멋진 것 같아. 나도 너처럼 나의 색을 찾아서 펼치고 싶어.

[예근] ▶ 고은이 학교 밖에서도 너도 너의 길을 잃으면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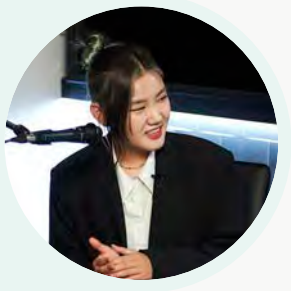


Scene 3
20개의 영상을 만든 20호

[예근] [준하]

[예근] ▶ 안녕! 20호. 숫자의 의미가 궁금해.

[준하] ▶ 나는 영화 감독이 꿈이거든.
그래서 25살인 지금까지 20개의 영상을 만들었어.



[예근] ▶ 와 대학 동안 20개라면 정말 쉴 틈이 없었겠다. 대단해.

[준하] ▶ 정말 바쁘게 살긴 했던 것 같아 20개의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즐겁게 만든 것도 있지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드러나는 숫자이기도 한 것 같아.

[예근] ▶ 나도 그 부담을 잘 알아. 나는 연예인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나를 빨리 드러내 보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준하] ▶ 맞아 나도 그랬어. 새내기 시절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 선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10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필요한 소양을 쌓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좋은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었지. 그런데 그 과정이 온전히 즐겁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

[예근] ▶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영상도 만들다니. 많이 바쁘고 지치기도 했겠다.

[준하] ▶ 너도 정말 열정적으로 살더라. 싱어게인 무대 내내 스스로
개성을 담아서 편곡도 하고 무대를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모습이 멋있었어. 지치고 버거운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 각자 원하는 꿈을 위해서 힘내자!

최예근 가수

싱어게인 23호 출연자

텅 빈 방에 날 가둔 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구보다 누구 다운
누군가가 되어 있진 않을까
누군가를 많이 닮은
누군가가 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해 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최예근 <누군가> 中

Q_ 오늘 세 명의 또래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어땠나요?

또래 친구들과 이렇게 단시간에 빠르게 말을 놓고 대화를 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 친구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참 고맙고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Q_ 오늘 친구들에게 불러준 노래 '누군가'는 어떤 곡인가요?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 방에 갇혀서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닮고 싶어지기도 하구요.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쓴 곡이었어요. 내 안에 갇히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요. 오늘 만난 친구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노래밖에 없었지만, 노래에 담긴 제 메시지가 친구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 했습니다.

Q_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래 친구들이 많아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로서 한 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지구가 멈춰있는 것 같애 얘들아. 빨리 달리던 발이 갑자기 멈춰지고, 빠르게 흐르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그래도 같이 달리고 힘내보자. 다시 우리의 시간은 돌아올 거니까!

◀ 이선우 **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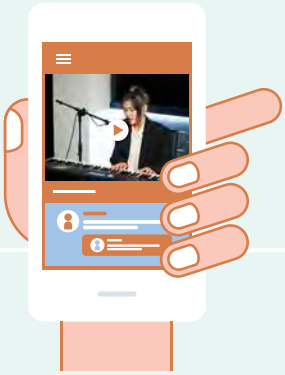
0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마음은 가볍게, 꿈은 묵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16호 이고은 ▶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찾기 위한 **길잃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파이팅!

◀ 황준하 **20호**

목표했던 꿈을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많이 지치시겠지만 주위를 충분히 둘러보시고 보다 **'나'다운 길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가수 최예근과 친구들의
1:1 대화와 라이브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세요!

#최예근 #싱어게인 #23호 #0호 #16호 #20호
#청년 #인터뷰 #누군가 #당신의이름을밝혀주세요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28 SSAFY와 함께 가요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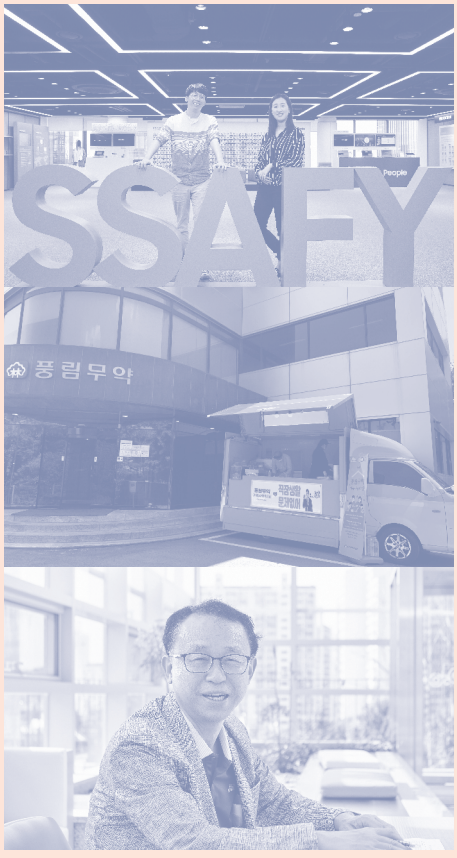
32 직원들의 퇴근 후 삶까지 생각하는 기업

36 금융권 최전선에서 정년없이 일합니다!

40 일본어 통번역가가
디자인은 왜 배우냐고요?

44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48 고용노동 뉴스



글 권찬미 | 사진 박찬혁

휴먼뉴딜 한국판뉴딜

SSAFY와 함께 가요 미래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육도 변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기술의 미래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알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발빠르게 앞장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실전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함께 그리는 더 나은 내일

Enabling People with SSAFY

삼성은 인재제일, 상생추구라는 경영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을 중심으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SW 멤버십, 주니어 SW아카데미,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며, SW 인재 양성 및 국가 차원의 SW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AMSUNG SW Academy For Youth, SSAFY)는 지난 2018년 12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SSAFY는 삼성의 SW 교육 경험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실전형 명품 SW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W 생태계 저변을 넓히고 대한민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SAFY는 삼성의 SW 교육 경험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SW 역량 향상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SSAFY 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SSAFY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SSAFY 교육생들은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교육생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1학기에는 기초 코딩 역량을 갖춘 신입 SW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데요. 2학기에는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한 실전형 SW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에 최적화된 온전한 몰입의 경험

#Focus on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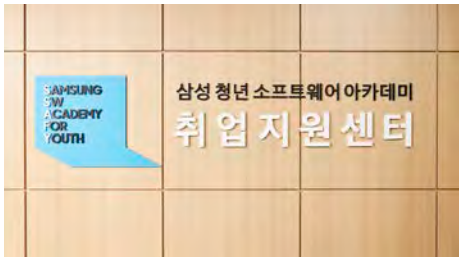
"졸업할 때쯤, 제가 개발자로서 자신 있는 실력이 있는지 의구심도 들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만 집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면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해야 해서 학부 기간에는 학점을 잘 받는 공부만 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더 깊이 있는 개발 활동을 하고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생겼던 차에 앞서 SSAFY 3기를 이수하시던 학부 선배께서 진로 상담과 함께 SSAFY를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걸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5기 교육생으로 수료를 앞둔 당현아 씨가 SSAFY 지원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교육을 수료했던 선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을 마음껏 받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아 씨는 SSAFY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SSAFY에 들어온 후에는 온전히 개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 환경이지만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교육생들을 살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은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소스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실무자분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기획을 할 수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즐겁게 교육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수 교육생인 한상길 씨도 SSAFY 교육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SSAFY에 들어온 후에는 온전히 개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 환경이지만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교육생들을 살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을 전공해서 코딩을 완전히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언어인 파이썬을 1학기에 배우고 2학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1학기에는 커리큘럼을 따라 이론을 잘 배웠는데요. 2학기는 팀원들과 뭉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낯설기도 하지만 지금은 함께 만들어낼 결과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취업률 77%의 실전형 인재 양성 기관

#become an excellent developer

SSAFY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는 오프라인 현장 강의와 유사한 수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Youtube, MatterMost, Webex 등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온라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업 SW 개발환경과 동일한 학습용 개발시스템인 SSAFY Git을 구축하여 실전형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공채 대비 온라인 회사 설명회를 진행하고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우수한 취업률이라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기 수료생 2,087명을 배출했는데요. 그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1,601명이 삼성전자, 신세계 I&C, 카카오 등 총 500여 SW 관련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SAFY 수료생들은 기업에서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료생들에게는 93개사에 특별전형 및 서류면제 등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생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SSAFY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교육생들이 미래를 이끌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많은 분들이 SSAFY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휴먼뉴딜 한국판뉴딜

늘봄이's Advice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자세한 교육과정이 궁금해요!

프로그램 구성

SW개발자가 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지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집중 수행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학기 기본과정 (5개월)	◦ 기초 코딩 역량을 갖춘 신입 SW개발자 육성
1차 JobFair (1개월)	◦ 취업역량 향상 집중 교육 ◦ 채용박람회 개최 ◦ 삼성전자 실습(우수 교육생 대상)
2학기 심화과정 (5개월)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SW개발자 육성
2차 JobFair (1개월)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 ◦ 채용박람회 개최

※ Java, Python, Embedded, Mobile 4개 Track으로 구성

프로그램 특징

·삼성의 SW 교육 노하우를 적용하여 탄탄한 SW 기본기 마련
·실무에 기반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개발 경험 축적
·SW개발자로서 가져야할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기술력 향상

교육생 지원 내용

·SW 교육 무료 제공 및 교육지원금 月 100만원 지급
·개인별 맞춤형 취업컨설팅 제공
·교육 중 삼성 SW 역량 테스트 응시 기회 제공
·우수교육생 삼성전자 실습 및 다양한 시상 제도 실시
·매학기 교육 종료 후 Job Fair 운영

※ 서울,대전,광주,구미,부산 5개 지역에서 운영되어, 전 지역 동일 수준의 SW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429-5100, ssafy@ssafy.com

글 황정은 | 사진 풍림무약주식회사 제공

직원들의 퇴근 후 삶까지 생각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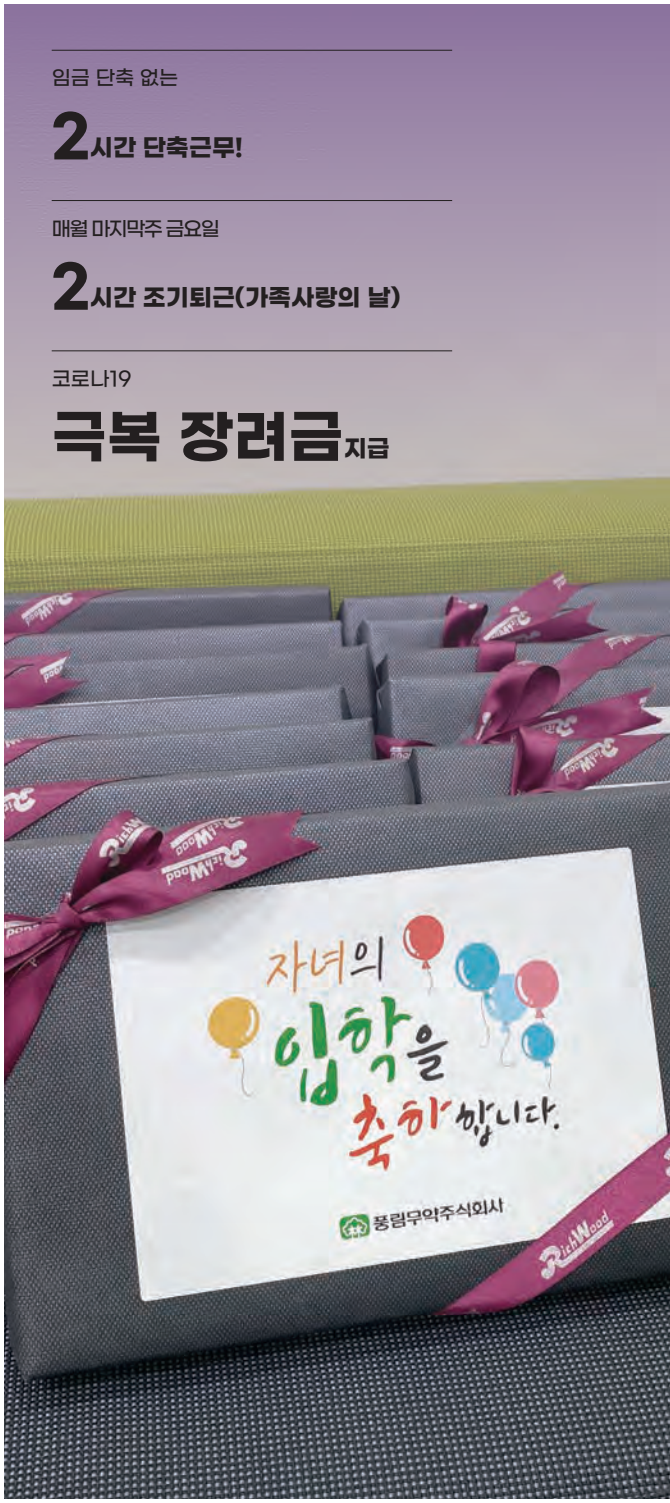
풍림무약주식회사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욱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워라밸' 이라는 단어가 괜히 탄생한 게 아니죠.
일도 열심히,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나의 일상도
소중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를 모두가 원하는 지금,
풍림무약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근 후 삶까지 생각하는 기업,
풍림무약주식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가족까지 직원처럼
챙겨주는 회사가 있다?

'장기근속근로자' 라는 말이 옛 말처럼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그만큼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속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풍경이 됐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직원의 대부분이 장기근속근로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풍림무약주식회사(이하 풍림무약)입니다. 1974년 설립된 후 무역업으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제약과 식품, 화장품과 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온 풍림무약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원료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해 온 것이죠. '사람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내일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풍림무약은 설립 5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풍림무약은 일하기 좋은 회사로 소문나면서 직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역회사 혹은 제약회사의 업무강도는 높기로 유명한데 두 업무를 모두 하는 회사의 업무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겠죠? 하지만 풍림무약은 이러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직원들의 삶이 있어야 기업의 업무효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반을 두어 직원 복지를 꾸준히 마련한 덕에 풍림무약은 다양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평등 공헌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지난 2020년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이죠. 이에 대해 풍림무약 측 관계자는 "첫째도 직원, 둘째도 직원을 생각하는 기업의 마인드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믿음이 기업 가치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회사의 손익만큼 중요한 게 직원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도 급여는 그대로 유지한 채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했어요.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당겼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출근 전 한 시간, 퇴근 후 한 시간이 매우 소중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쉼은 늘리고!

풍림무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입니다.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것에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적용돼, 불필요한 시간외 근로를 줄이고 회의는 간소화하는 문화로 기업의 근로환경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의 퇴근 후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풍림무약은 '가족사랑의 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이날은 풍림무약의 모든 직원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불금'은 전 국민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그 '불금'을 보다 여유있게 즐김으로써 가족과 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살뜰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덕분에 아이가 있는 직원들은 가족들과 주말 캠핑을 여유있게 즐길 수도 있고, 가뿐한 마음으로 근교 여행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녀와 배우자도 풍림무약을 더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하네요. 그 응원 덕에 직원들은 '사부심(회사 자부심)'이 생겨 어깨가 더욱 으쓱 올라가게 되었죠.

코로나 시대 속,
직원과의 동행을 고민하는 기업

풍림무약의 직원을 향한 배려는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코로나 발발 후 본격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풍림무약은 임금 조정 없는 2시간 단축근무 실시부터 시작해 '코로나19 극복 장려금 지급', '마스크 지원 또는 마스크 구입비 매월 지원' 등의 제도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풍림무약의 한 직원은 "작년 코로나 발발 직후 마스크

가 없어서 전 국민이 걱정했을 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공수해줬다"며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모두가 두려워할 때 회사의 이러한 빠른 대응이 매우 든든하고 안심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한 직원은 임금조정 없는 2시간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두고 일찍 출근하는 마음이 늘 좋지 않았는데, 출근이 한 시간 늦춰지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등교시킨 뒤 회사에 올 수 있게 되었고, 퇴근 후에도 아이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온 가족이 너무나 행복해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작은 배려가 직원과 직원의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해준 것이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는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조직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인 만큼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코로나19라는 위기와 마주한 풍림무약의 진짜 얼굴은 '배려'였습니다. 회사가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원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이죠. 직원들도 그 진심을 알고 있기에 회사가 잘 되는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관계, 그야말로 '가족'인 셈입니다. 서로 가족이 되어 매일을 채워나가는 풍림무약의 현재와 미래는, 그렇기에 더욱 빛나고 또 빛날 것입니다.

풍림무약주식회사의 고용평등·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비결

재택·유연근무 운영 활성화로 코로나 19 위기 대처능력 강화

특히,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임금 조정 없는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입학선물, 근속축하선물 지급

코로나 19 극복 장려금 지급

마스크 또는 마스크 구입비 매월 지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마련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등

글 정라희 | 사진 박찬혁

금융권 최전선에서 정년없이 일합니다!

빈원호 재무 컨설턴트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요즘, 60대는 한창 일하기 좋은 시절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듯, 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빈원호 씨는 여전히 일자리 최전선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의 위기를 딛고 도전한 새 출발

1997년은 한국인에게 깊이 새겨진 해입니다. 외환위기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시름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17세부터 27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 지점장이 될 만큼 금융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온 빈원호 씨도 외부에서 밀려온 거센 파도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국내의 많은 은행이 정리되었습니다. 철부지 시골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내내 은행 일만 알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졌어요."

다행히 지인의 조언으로 금융공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한 금융회사에서 임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대로 경력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이직을 택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임원은 임시직원의 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던 직장에 있으면 계약직이어도 큰 책임은 지지 않으니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임원이 되고 보니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더군요. 그렇게 금융권에서만 35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난관을 몇 차례 넘으면서 그가 얻은 깨달음은 '제자리에 있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 경력으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 새롭게 교육받을 경로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2010년에 지인의 추천으로 노사발전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쌓으며 기회를 보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상담을 받으며 '강의'와 '상담'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발견했다는 빈원호 씨. 더불어 금융권에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게 신용상담사와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계발에 매진하다 보니 여러 경로로 기회가 왔지요. 산업체 출신 겸임교사로 특성화고등학교

에서 3년동안 금융, 재무를 강의했고, 예금보험공사 소속으로 2년 반 동안 생활금융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생활금융강의와 재무강의는 지금도 강사로서 종종 맡고 있습니다.

"뛰어난 전문강사는 아니어도 늦은 나이에 강사로 뛰어들면서 저만의 경쟁력과 강의력을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강의록을 따로 정리해서 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 사람 많은 지하철역에서 강의 연습을 하면서 담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열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이후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도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도 강사 경력을 살려 강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더 널리 전하며

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그가 맡은 주요 업무는 생애설계와 관련한 일입니다. 50대 이상 성인들이 인생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재무와 건강, 사회공헌, 여가, 인간관계 등 다방면으로 상담합니다. 비록 그는 외환위기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를 만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재취업을 했지만, 그보다 뒤에 인생2막을 준비하는 인생 후배들은 좀 더 수월하게 다음 단계를 밟기를 바라며 진심을 담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입니다. 중장년이 재취업을 하려면 경력관리가 필요해요. 저도 이곳에서 전직 지원 상담을 하지만, 기존 경력으로 이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창직도 추천합니다. 저 역시 컨설턴트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SNS 관련 교육을 듣고 있고요."

어제보다 발전한 오늘을 만들기 위해 그가 하는 일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빈원호 씨는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된다면 70대 중반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개척하며 누군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성장 중입니다.

뛰어난 전문강사는 아니어도
늦은 나이에 강사로 뛰어들면서
저만의 경쟁력과 강의력을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50대 이후에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입니다.
중장년이 재취업을 하려면 경력관리가 필요해요.
저도 이곳에서 전직지원 상담을 하지만,
기존 경력으로 이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창직도 추천합니다.
저 역시 컨설턴트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Send a letter

성실과 열정으로 새 길을 개척하는 분이십니다

2010년경, 금융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빈원호 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초반에는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내시라는 의도에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구민대상 금융 강의에 빈원호 님을
추천했었죠. 초보강사에게 300명이 넘는
대형강의는 상상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강의날에 구민회관의
빔프로젝트가 고장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록을 모두
외우셔서 그날 강의는 무사히 진행되었죠.
이후에도 서울시서민금융상담사업,
특성화고등학교 상담 등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이는 숫자'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80세까지도 거뜬히
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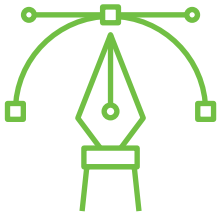
정양범 매경비즈 생애설계센터장

글 황정은 | 사진 박찬혁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세연 씨

일본어 통번역가가 디자인은 왜 배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에 능통하면 앞으로 취업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본어 통·번역가로 근무하던 김세연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한 것이죠. 김세연 씨가 다시 직장을 찾게 된 배경, 같이 들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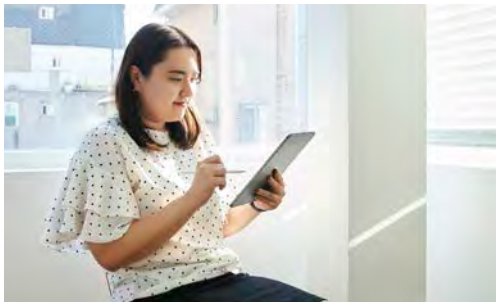
외국어 잘하면 만사형통 아니냐고 묻지만

"일본어 잘하시고 이미 통·번역가로 활동 중이신데, 왜 디자인을 배우려고 하세요?"

현업에서 통·번역가로 활동하던 김세연 씨가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직업훈련기관에서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왜'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멋진 앞날을 살 수 있지 않냐는 편견이 담긴 질문이었죠.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연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전 일본어 통·번역가로 활동했습니다. 20대에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한 후, 국내로 돌아와 통·번역가가 된 그녀는 나날이 발전하는 번역기 기술 속에서 앞날의 불투명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본어를 배우고 통·번역가가 됐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언어로 먹고 사는 일이 과연 10년 후에도 가능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통·번역 일을 시작 할 때가 2013년 도쯤인데 그때만 해도 번역기 프로그램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 사람이 개인 방송을 하는 데 50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돼 송출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언어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다' 라고요."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나아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 인력이 차례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차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를 위한 새로운 도전

결국 회사를 그만둔 세연 씨는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한 만큼 일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세연 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을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로 지내야 했고, 그 시간 동안 세연 씨는 취업문이 점점 좁아진다고 느꼈습니다.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고배를 마셨으니까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시대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때 그녀가 눈을 돌린 곳은 그래픽 디자인 분야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미술을 좋아했던 그녀가 과거의 꿈을 살포시 꺼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사실 10대 시절 미술을 공부하고 대학도 미대로 진학했었어요. 하지만 재학 중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죠. 그렇게 일본어를 접하고 통·번역가가 된 것인데, 결국 다시 돌고 돌아 제 원래 꿈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하지만 그 때 까지만 해도 제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꿈까지 가는 길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좌절만 하고 있는 저에게 친구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곧장 상담을 받은 그녀는 '취업성공패키지 편집디자인양성과정'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인디자인 툴을 배우는 2D 편집디자인 과정으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예일 컴퓨터학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같은 순간들이었어요. 나를 위해, 또 내 10년 후를 위해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심지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였죠."

"국민내일배움카드 덕에 새 출발 꿈꿀 수 있었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배움의 시간은 김세연 씨에게 매우 절박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서 꼭 취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교육에 집중했죠.

"훈련이 끝날 즈음에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과 함께 공부했구나 싶어서요."

김세연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툴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낙 기본을 탄탄히 배웠기에 현장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을 접할 때도 쉽게 응용할 수 있었다고 했죠.

"앞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싶어요. 회사에 속해 일하다 보면 상사 혹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만의 독보적인 작업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제 디자인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년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취업자's 꿀팁>

목표를 확실히 두고 훈련에 임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마음으로, 확실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비전이 그려진다면 자신에게 유망한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저를 상상하면서 비전이 그려졌거든요. 여러분도 그 상상이 가능한 분야로 지혜롭게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한울 기자(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3기)

현지 근무자 인터뷰로 보는 아프리카의 일과 삶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저는 케냐의 NGO에 근무하면서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세 편의 기사를 통해 케냐의 NGO 현황, 고용법, 그리고 현지직원 근무 사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개발협력은 위축되었으나 동시에 보건, 의료, 교육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현재 국제개발협력의 역할도 다시 조명받고 있어, 이 시국에 현직자의 소감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청년들이 진로를 위해 고민할 때 도움이 되고자 실제 업무를 수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인터뷰. **이한비 님**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동아프리카어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한 이한비입니다. 2019년도 1학기에는 케냐 나이로비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케냐에서 공부했으며, 귀국 후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하트하트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Q2 하트하트재단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하트하트재단 국제사업본부 산하 전략개발팀에서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략개발은 NGO에서 국제개발협력 수행을 위해 협력(Partnership)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조를 지양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력할 일이 많은데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은 국내외 NGO는 물론이고 국제기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같은 공공기관과도 소통하며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Q3 지원서 작성과 면접 과정을 향후 구직자분들을 위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하트재단 지원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춘 기본 지원서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서는 총 네 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지원동기, 직무경험 및 역량, 팀 과제 사례, 갈등상황 극복 사례를 다뤘습니다. 우선 모집공고를 낸 110여 개 중 저의 가치관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10~15군데 선별했습니다. 질문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는 달랐기에

홈페이지와 연차보고서 등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은 '가치 기반'의 성과를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솔직하게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풀어서 경력과 경험을 쓸 때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대외활동을 최대한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나름의 성취와 성찰한 점도 언급했으며, 촘촘하게 11개에 달하는 관련된 활동을 적었습니다.

Q4 조금 더 자세하게 입사 전 경력과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피력하여 합격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외유학, 대외활동에 대한 경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역량보다도 자세와 태도, 가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도 바로 가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어로 "ODA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제개발협력은 너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제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그렇다고 다른 직무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어로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공의 특성상 스와힐리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해외교환학생과 체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위기상황 극복 경험, 열린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최대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입사 후 실제로도 제 경험이 업무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맡은 직무는 그 특성상 외국어를 사용할 일이 많았습니다. 지부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번역과 영문자료에 기초한 자료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Q5 그렇다면 어떻게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케냐에서 공부하게 되었나요?

아프리카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봉사와 선교에 뜻을 두고 있다가 아프리카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의료계열에서 공부하다가 진로에 대해 고민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일',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했고, 아프리카를 목표로 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프리카어과에 편입한 것이죠. 이후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케냐 나이로비대학교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쌓았습니다.

Q6 케냐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케냐만 생각하면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학 생활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로서 일하는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비영리기구 분들을 만나며 사업 현장은 물론 아프리카 유엔본부도 방문할 수 있었거든요. 직접 근무현장을 보며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인터뷰. 조은비 님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공학과를 전공한 25살 조은비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Q2 디자인 전공이신데 아프리카에서 일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 신기합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었나요?

3학년 1학기에 프랑스 트루아(Troyes)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살아본다는 마음으로 교환학생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 '디자인공학론'이라는 전공수업을

들으며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수업마다 교수님께서는 디자인공학을 전공해서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히 직업 그 자체나 소속된 조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동사로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 자기고민과 성찰,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취지와 함께 매주 하고 싶은 일, 꿈, 비전, 그 구현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품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앞으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불안함을 느꼈죠. 전시디자인과 박물관, 미술관으로 폭을 넓혀 고민했으나 이것도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와 적정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고, 아프리카를 두고 앞으로 제 직업과 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Q3 탄자니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다고요?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도시의 한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담당한 지역에서는 냉장시설을 마련하기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냉장과 보관을 해서 옥수수를 보존하여 수확기 이후에 옥수수 판매를 판매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옥수수 탈곡기를 고안했습니다. 재배된 옥수수가 상품화되는 과정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웠기에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수동식 탈곡기를 만들었습니다.

Q4 그리고 아프리카인사이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가요?

국제개발협력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ODA사업수행기관 YP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YP로 아프리카인사이트에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2020 청년재단 일경험 지원사업(콘텐츠 제작·홍보)' TO로 아프리카인사이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을 고민하며 현지의 수요를 동등하게 이해하고 자세, 수혜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에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고하는 역할은 정말 저에게 꼭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관을 홍보하는 업무였지만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만 중요하지 않을 것이며,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고민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비록 제가 해외 봉사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관계나 지역학을 전공해서 공공외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적정기술로 아프리카에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수혜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만의 수요가 있는 한 대상으로 존중했을 때 사업이 해결된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곧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5 아프리카인사이트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나요?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업로드)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순 제작이 아니라 기획도 전담했습니다. 아이네디터라는 청년 그룹 운영도 담당했습니다. 아프리카인사이트에서 서포터즈나 기자단처럼 아이네디터를 운영하는데요. 아이네디터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다섯 명의 인원이 끈끈하게 뭉쳐 아프리카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사이트의 2020년 연차보고서 기획 및 제작, 디자인도 담당했습니다.

Q6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 적정기술, 적정기술을 구현할 방법과 지역에 대한 고민,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마주한 국제개발협력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적정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여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근무할 경험이 있다면 도전하고자 합니다.

MOEL News

1

일자리위원회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K-Digital Training) 등 새로운 훈련모델을 도입하여 디지털·신기술 인력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또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고,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21년 500개)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합니다.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역량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❷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입니다.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고,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합니다.

❸ 자율·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이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OEL News

2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❶ 지출조정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하여 '22년 약 1조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22년 약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50%~10%)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합니다.

❷ 수입 확충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0.2%p '22.7.1~) 등을 통해 '22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23년 이후 1.8조 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일반회계)하고 약 5천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기업 ·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 · 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1.8%, 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분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각 계정(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27년 예상)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 · 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 ·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OEL News

3

주요 IT 기업 대표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주요 IT 기업 CEO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기회 확대',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기업 사례 발표, 정부의 협조 및 당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IT 기업',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취지를 설명했고, 넥슨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청년 인력 양성 및 채용,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공유했습니다.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규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를 소개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CEO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요 IT 기업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준비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직장 문화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IT기업 CEO들은 '청년 인력양성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기회와 채용의 문을 넓히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특히, 기업 CEO들이 의지를 갖고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2021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김병철(주식회사 서린메디케어 대표), 송재민(까마종 대표), 김상수(동방이기제작소 대표) 등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는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숙련기술장려사업의 하나로서,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1명, 우수 숙련기술자 53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입니다.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올해는 의료장비제조 직종의 주식회사 서린메디케어 김병철 대표 등 11명(11개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의료장비제조 직종의 첫번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린메디케어 김병철 대표는 플라즈마라는 신기술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병철 대표는 저온대기압 플라즈마 방식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하는 중간단계인 '우수 숙련기술자'는 텍스타일디자인 직종의 까마종 송재민 대표 등 53명(30개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텍스타일디자인을 통해 한국만이 가진 화려한 색감과 전통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까마종 송재민 대표는 한글글자꼴과 문화유산 건축물을 융합한 디자인으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해 텍스타일디자인직종에서 첫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우수한 숙련기술을 전수할 '숙련기술전수자'는 소성가공 직종의 동방이기제작소 김상수 대표 등 4명(4개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유일 복합단조를 활용한 조각도를 생산하는 동방이기제작소 김상수 대표는 50여 년간 쇠와 함께 살아오며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보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숙련기술인들은 오랜 시간 다져온 기술과 노하우로 숙련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숙련기술인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예비 숙련기술인들을 양성하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OEL News

5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 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 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 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하여 누적('16.7월~'21.8월) 48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추경사업 주요 제도개편 사항

▶ 가입 대상에서 장기실직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가입 청년 임금상한 조정(월 350만 원 → 300만 원)

▶ 기업자부담 20% 도입(50인 미만 기업 면제)

6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이 지난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 기술 장려에 공헌해 온 신성갑 ㈜남양이엔에스 대표 등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전수됐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병철 ㈜서린메디케어 대표 등 11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여 참석인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일부(10명) 및 대한민국 명장(11명) 등 수상자 본인으로만 최소화하여 진행됐습니다.

20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포상자 중 영예의 '훈장' 수상자는 신성갑 ㈜남양이엔에스 대표이사, 박진범 기아㈜ 오토랜드 화성 선임엔지니어, 신화남 신화남뷰티갤러리 원장 등 3명이며, 이 밖에 정태윤 ㈜강남 대표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훈·포장 등 포상과 대한민국명장 증서를 전수한 박화진 차관은 "내년 직업능력의 달에는 모든 수상자분들과 그 가족, 동료분들을 모두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과 함께,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공자와 명장 등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이 쌓은 기술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직업능력의 달」에는 이날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뿐만 아니라 「제15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등 다채로운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표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MOEL News

7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축소, 고용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주요 내용 >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이 온라인·비대면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비대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몰 연계 및 입점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협, 생협, 수협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상품 발굴·입점·홍보 등 판로지원 연계 강화 및 진입을 간소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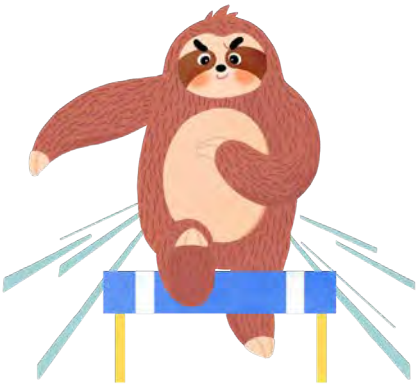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조직인 소셜벤더를 육성하고,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 판로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공급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업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계획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판로지원, 조달·상품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 혁신타운 등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모태펀드 및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 보증한도 우대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가치소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업모델 발굴, 바이소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8

사내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 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됐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 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합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년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조선업(K-조선) 재도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선순환·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항공기부품·승강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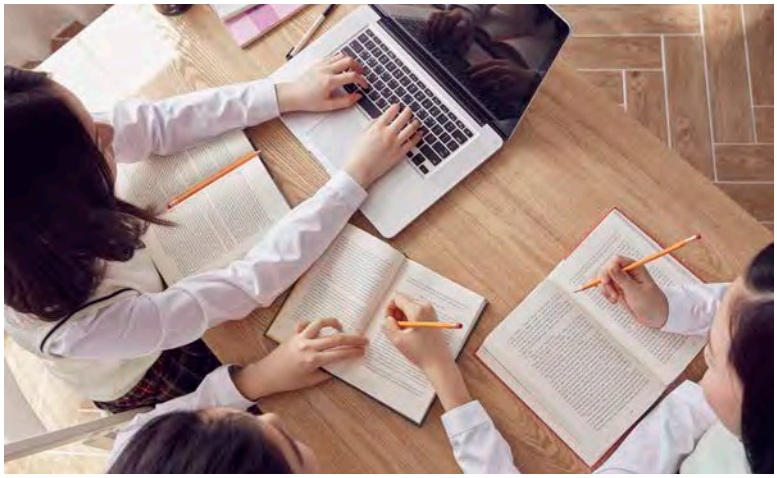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EL News

9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특성화고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확대 운영됐으며, 학생과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정보 공유, 기업견학·직무체험, 다(多) 대 다(多) 면접 등을 통해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학생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영상 자료,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기업 면접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포트폴리오)을 제작하여 면접에 활용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도 참여하여 도제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이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Healing

인생 2막, 불을 켜다

60 갯마을에서 차차차
짠내 가득 어촌살이, 제법 할만한가요?

64 찬란한 우리네 인생·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66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유형별 직장인 커뮤니티 살펴보기

68 꽃보다 청춘이라던데...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72 치아를 튼튼하게 지키는
네 가지 방법!

74 10월 영화·도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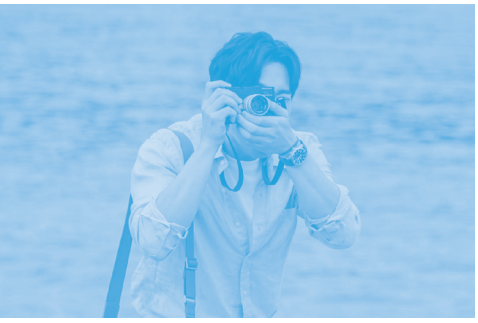
80 #내일스타그램

글 권찬미 | 사진제공 tvN

갯마을에서 차차차
짠내 가득 어촌살이 제법 할만한가요?

시원과 풍광과 설레는 로맨스, 정겨운 시골 인심이 어우려지면서 최근 시청률 10%를 돌파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배우 신민아와 떠오르는 대세 배우 김선호의 만남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속 노동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도시를 떠나 찾은 바다마을
“그런데 되는 일이 너무 없어!”



치과 의사 혜진의 하루는 영 신통찮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던 치과에서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환자를 위하다가 원장의 눈 밖에 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돌려도 기존 원장의 압력으로 좀처럼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죠. 설상가상 엄마의 기일을 떠올리며 그리운 마음에 찾은 어촌 ‘공진’의 해변가에서는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돌아가려니 차에 기름도 떨어지고 타이어는 펑크나고, 화장실이 급해 찾은 카페에서는 결제를 하려고 하니 카드기기가 먹통이라고 하네요. 현금이 없는 혜진에게 커피 한 잔 값을 빌려줄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이때, 과연 혜진은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갑작스런 실업에 생계가 걱정인가요?

혜진처럼 갑작스런 실업에 막막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제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수급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꼭 지원을 받아서 재취업에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문의: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위기의 혜진 앞에 나타난 홍반장
“절 도와주시는 건가요?”

위기에 빠진 혜진의 앞에 홍반장 두식이 나타납니다. 홍반장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나타나는 마을의 공식 해결사인데요. 혜진이 해변에서 잃어버린 한짝의 구두도 찾아주고 슬리퍼까지 빌려준 인물이었기에, 혜진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어보았죠. 하지만, 역시 초면인 혜진에서 돈을 빌려줄 마음은 없는 걸까요? 두식은 갑자기 혜진을 수산시장으로 데려갑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새로운 일꾼이 왔다며, 가볍게 인계하고 훌쩍 자리를 떠나버리는 두식과 당황한 혜진. 그러나 당장 커피값도 타이어 수리값도 없는 혜진에게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앞치마를 매고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합류하는 혜진은 처음 경험하는 노동에 어깨도 무릎도 편치 않습니다. 종일 오징어 내장을 제거한 혜진 앞에 불쑥 다시 나타난 홍반장은 그런 혜진에게 아르바이트 시급을 백원 단위까지 맞추어 현금으로 지급하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줄 아냐며 섭섭해 하다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혜진, 봉투에 든 값진 노동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0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한주 근무시간인 48시간으로 환산하면 주급으로 1주에 418,560원, 한달 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인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할 시 1,822,4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는 5.0% 인상률로 월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문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

바닷마을에서 개원에 나서는 혜진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하룻밤 공진에 머물면서 혜진은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 치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당장 치아가 불편하고 상해도 걸어서 갈만한 마땅한 치과가 없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혜진은 개원을 하면 어떨지 상상해봅니다. 개원에 드는 초기 비용도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마침 도시에서의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혜진에게, 공진은 좋은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진으로 근거지를 옮겨온 과연 혜진은 과연 낯선 어촌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공진에서 펼쳐질 혜진의 삶은 어떨까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사업주 여러분,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코로나19로 힘든 사장님들 많으시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1인 자업영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해당하는 지원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http://www.jobfunds.or.kr/main.mo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글·그림 안쪽인간

〈안쪽인간의 단상〉
찬란한 우리네 인생
고용노동부x안쪽인간

로또 당첨과 퇴사 노래를 부르는 직장인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이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
어쩌지...?
망한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방황도 많이 했고
디자인 전공이지만 웹툰을 그리고싶어,,!
따흐흑...

전형적인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죠
너 아직도 취업 안하고있냐?
그만큼 했으면 포기해 너 후회한다 진짜!
안되는거 붙잡고 있지말고 지금이라도 인적성 공부해!
아,아니,, 나는,,

그 고민과 방황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취업할건데 왜 그렇게 시간낭비를 한거야? 후회되지 않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흠..

전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않아요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은 유의미하니까요!
아니? 전혀 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거야
그때 경험으로 고맙다고 돈도 벌고 있다고!
완주하는 그 날 까지
모든 청년들 화이팅 입니다!

〈안쪽인간의 단상〉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
고용노동부x안쪽인간

여러분에게 일과 직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 주변은 일과 직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수단
삶의 일부
N잡러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고
이 업무는
제 커리어에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직무 변경
신청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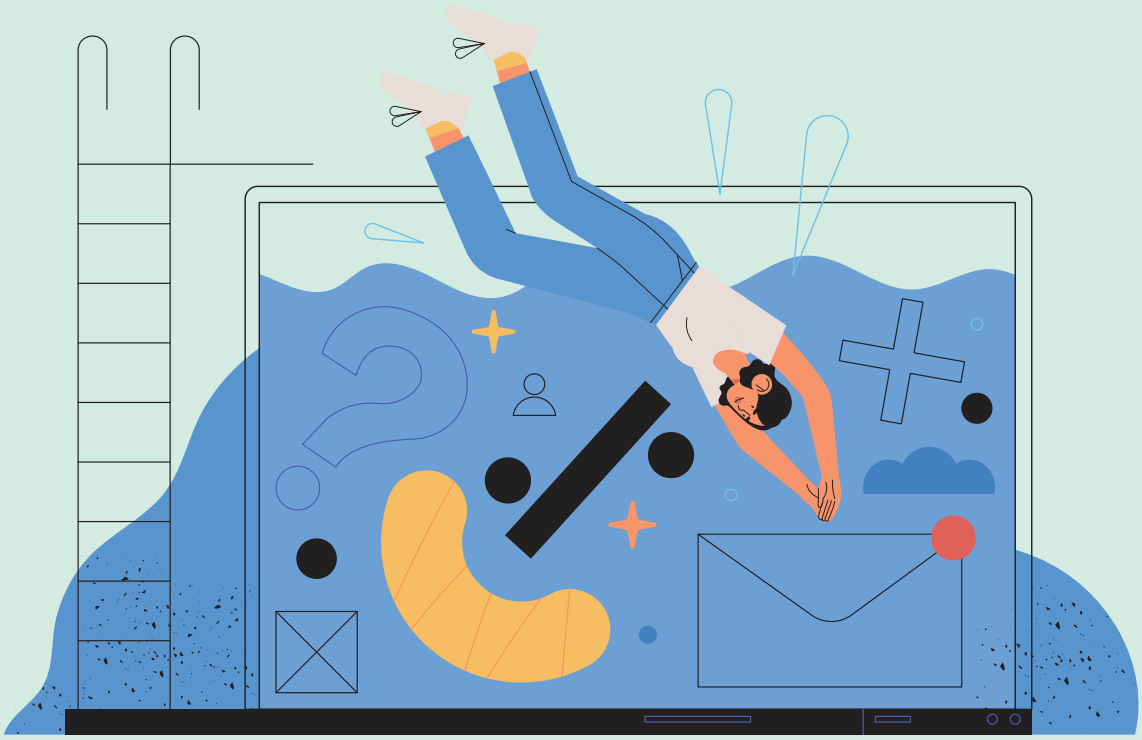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가지 일을 병행하거나
안녕하세요~
유튜버
내 책..!
청삭!
청삭!
독립출판작가
프리랜서 번역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열정히 잘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것도 불사하죠.
전 행복을 찾아
퇴사하렵니다
이 좋은시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미련 없음

전 이런 사람들이 그려 낼 미래가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트렌드를 선두 할
깜냥은 못되기에,,!
열심히 따라가
보렵니다,,!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유형별 직장인 커뮤니티 살펴보기

연봉, 사내 인간관계, 이직, 재테크, 연애와 결혼 등. 직장인들은 언제나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고민을 마땅히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거나 털어놓기 애매한 고민인 경우도 많죠. 그럴 때 요즘 직장인들은 주로 직장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내 최대 직장인 커뮤니티

▶ 블라인드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최대의 직장인 커뮤니티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도록 했죠. 블라인드에는 다양한 라운지가 있는데요. 이직·커리어 라운지, 부동산·주식 라운지, 회사생활 라운지, 썸·연애 라운지, 결혼·육아 라운지, 취미생활 라운지 등. 직장인의 거의 모든 관심사들을 게시판 별로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직장명이 뜨기는 하지만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어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다 보니 각종 기업 내 문제를 고발하는 직장인 신문고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궁금한 회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 잡플래닛

잡플래닛은 기업 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다소 정보의 바운더리는 한정적이지만 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죠. 복잡한 서비스나 게시판 기능은 없지만 궁금한 회사의 이름을 검색하기만 해도 해당 회사의 현직자나 퇴사자들이 평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평점, 장점, 단점,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연봉, 면접, 채용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글로벌 현직자와 소통하고 싶다면?

▶ 링크드인

좀 더 글로벌한 교류를 하고 싶다면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링크드인은 프로를 위한 커뮤니티를 표방한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검색, 아는 사람 찾기, 업무 기량 넓히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명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라서 정보의 신뢰성이 높고, 실질적인 인맥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꼭 링크드인에 가입하라는 말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동종 직무 교류에 특화된 커뮤니티

▶ 리멤버 커뮤니티

명함 관리 서비스 플랫폼 리멤버도 커뮤니티 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리멤버 커뮤니티의 특징은 직무 연관성인데요. 인사, 마케팅, IT 등 자신이 속한 직종 특화 커뮤니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실명이나 연차 정보를 포함한 고정된 닉네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 비해서 정제된 톤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정 직종의 실무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거나 각 분야별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꽃보다 청춘이라던데...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꽃보다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기도 전에 좌절하기 쉬운 요즈음.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게 청춘의 시기를 활짝 꽃피울 수 있을까요?

Q1 30인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입니다. 지방에서 졸업 후 바로 수도권 지역에 취업하게 되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회사에 체계가 없고, 지난 달에는 월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투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표님께서 설명하는데, 저는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마땅히 모아둔 돈도 없구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월 급여가 밀리니까 너무 초조합니다. 이렇게 계속 월급이 밀릴까봐 이직을 알아봐야하는 건가 싶기도 하구요. 저처럼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만, 생계가 걱정인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을까요? 도움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세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컨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특별 지원프로그램(서울시는 시행중)을 계획 중이고, 청년의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 원 → 5천만 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매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 등으로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 제도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 지급 지원을 안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졸업 후 학사장교로 근무하다가 이제 곧 사회로 복귀하게 될 29살 청년입니다. 제가 입대할 시기만 해도 전역 후 취업에 꽤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전역할 시기가 되니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소속이 사라지고 월 급여가 사라지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it 쪽 기술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있을까요? 사회 복귀 후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다시 준비할 것이 많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자가 청년, 여성, 장년인지 여부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관련 서비스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직업 관련 역량에 대한 판단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Digital Training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관련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 기업이 문제를 제시하고 훈련생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춰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진행하게 되며, 훈련비 전액과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시 훈련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에 관한 세부 문의나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전 재직하던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로 직장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자가 처한 상황이나 직무의 적합성이 맞는지 등을 고려해 철저한 직업훈련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상 워크넷이나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고용센터에서 세밀한 개인별 교육훈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3 졸업 후 대기업에서 파견직 근무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밤잠을 줄여가며 국내 유수의 기업에 중고신입으로 서류를 넣었지만, 상하반기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게다가 근무 중 스트레스성 위염과 공황장애가 생겼고 채용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무 능률도 너무 떨어지고 제가 정규직으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인재인지도 스스로 의심이 되는데요. 업무능률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친 심신을 단련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휴가 신청을 했는데, 바쁜 시기에 쉴 생각을 한다며 거의 못 쓴 연차도 반려당했습니다. 그냥 퇴사하는 것이 답일까요.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 회사를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일하면서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은 없을지, 못 쓴 연차를 소진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하며, 해당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 요인에 노출되고, 전후 과정을 검토하여 보건대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공황장애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의학적으로도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때에는 요양기간 중의 치료비, 휴업급여(월급여의 7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되어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담과 같은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재나 취업활동 계획 등을 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상담 질병이 발병된 것인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당초 신청한 날에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막연히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상담에서처럼 아무래도 재직 중에는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마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퇴사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때에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요건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먼저 본인의 희망이나 요건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적절한 역량강화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글 권찬미

치아를 튼튼하게 지키는 네 가지 방법!

치아는 평소에 중요성을 잊고 살다가도, 상하거나 부서지는 등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미리 치아 건강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리거나 피나는 잇몸 질환과 치아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고 음식을 기분 좋게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올바른 칫솔질은 언제나 필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치아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은 역시 칫솔질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은 어릴 적부터 구호처럼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칫솔질은 영혼없이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신경써서 칫솔질을 해야할 때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 표면을 원을 그리며 쓰어내리는 회전법,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를 집중적으로 닦아주는 바스법, 와타나베법 등이 있는데요. 자신의 치아 상태를 알고 적극적으로 양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를 부식시키는 음식들을 피해요

과일이나 탄산음료 등 당이 많은 음식은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키고 충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 단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탄산 음료의 산과 치약의 성분이 만나서 치아를 부식시키는 작용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탄산, 맥주, 커피를 마신 뒤에서 물이나 가글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고 난 뒤 양치를 하는 것이 치아에 좋다는 사실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실과 치간칫솔을 적극 사용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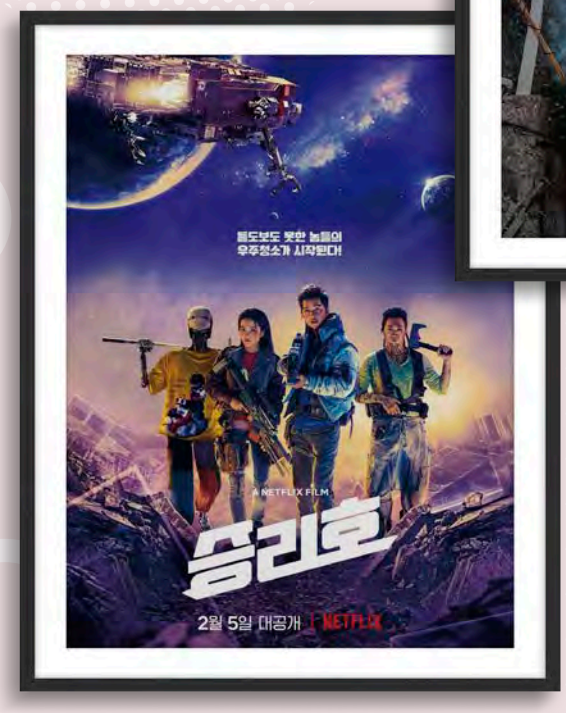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정을 하고 있거나 치아 배열이 불규칙해서 칫솔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칫솔 외의 도구를 활용해서 치아 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치아의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주세요

바쁜 직장인에게도 병원 방문은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잦은 음주와 커피 섭취,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장인이라면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치아 상태를 검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설태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사랑니 제거와 치주질환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글 류디혜

슬기로운 집콕러들을 위한 흥미진진 액션 무비



시원하고 유쾌한 탈출 액션 무비

엑시트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시원한 액션 무비를 찾으신다면? '엑시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한국형 재난 액션 코미디를 그린 엑시트는 개봉 당시 94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요. 대학교 산악 동아리 에이스 출신의 청년 백수 '용남'과 그의 동아리 후배 '의주'가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남과 의주가 빌딩 벽을 타고 오르며 밧줄을 통해 건물을 넘나드는 모습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재기발랄한 탈출 액션을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이슈와 만난 한국형 재난 영화

싱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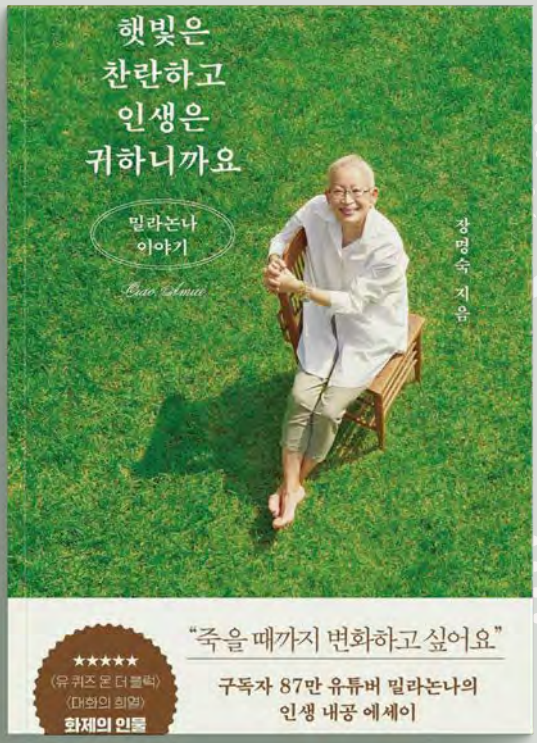
평범한 직장인 '동원'은 11년 만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합니다. 감격에 겨운 그는 직장 동료들을 집들이에 초대하는데요. 하지만, 넘치는 기쁨과 행복도 잠시. 다음 날 갑자기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빌라 건물이 지하 500m 아래로 통째로 추락합니다. 동원의 집들이에 참석했던 '김 대리'와 인턴사원 '은주', 그리고 이웃 '만수'와 그의 '아들'까지 함께 말이죠. 하루아침에 싱크홀 속으로 떨어져 버린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초대형 암벽과 대규모 수조 등 실감 나는 세트와 압도적인 비주얼로 무장한 다채로운 스펙터클을 함께 즐겨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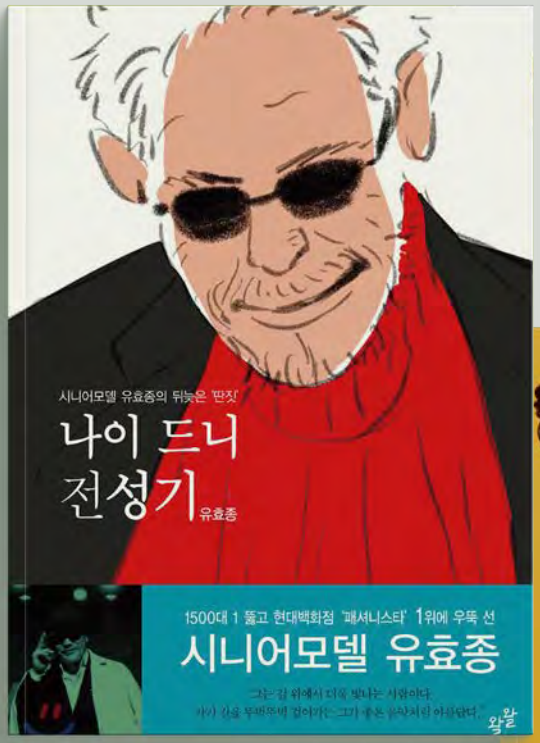
국내 최초 SF 우주 블록버스터

승리호

때는 2092년.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우주 위성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허나 이곳은 오로지 선택된 소수만이 입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얻지 못한 비시민권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우주선 '승리호'에 탑승한 '김태호', '장 선장', '타이거 박', '업동이'는 우주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좌절하던 선원들은 우연한 계기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로시를 거액의 돈과 맞바꾸기로 결심한 그들. 과연 안전하게 거래에 성공한 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펼쳐지는 우주 블록버스터를 경험해 보세요.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친 어른들의 이야기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는 멋진 어른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밀라논나 이야기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 서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의상 디자이너, 이탈리아 정부 명예기사 작위 수여자, 구독자 89만 명 보유 유튜버. 모두 한 여성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밀라논나'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장명숙 씨죠. 그녀가 유튜브를 통해 못다 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발간했습니다. 먼저 세월을 건너온 경험자로서 인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개척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밀라논나만의 깊고도 진한 성찰이 담긴 인생 에세이를 읽으며 '밀며든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시니어 모델

나이 드니 전성기

2019년,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서 1등을 움켜쥔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와 영화까지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호종 씨인데요. 36년간 나라를 위해 봉사했던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시니어 모델이라는 반전 인생을 걷기까지. 그에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닌 남들과 차별화된 멋이었습니다. "전성기는 박제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는 그의 말처럼 열정과 용기를 잃지 않는 멋진 인생 2막을 함께 따라가 보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코리아 그랜마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구글 CEO가 찾아오고 CNN과 인터뷰하는 월드 클래스 코리아 그랜마, 바로 '박막례' 할머니 이야기죠. 구수한 사투리에 찰진 욕으로 무장한 그녀는 유튜브 골드 버튼까지 받은 유명인사입니다. 칠십 평생 일만 하다 치매 위험 진단을 받고 손녀의 권유로 해외여행을 함께 떠난 뒤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편(팬)들'이 있죠. 유튜버로서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연 그녀가 책을 통해 '무언가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귀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드라마의 감동을 되새겨주는 감성 OST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는>

새로운 시즌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극 중 등장인물들이 합주하는 노래들도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즌 2에서 선보인 두 번째 단체곡 '언젠가는'은 1993년 발매된 가수 이상은의 정규 5집 타이틀곡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에 의해 커버 혹은 리메이크될 만큼 오래 사랑받고 있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미도와 파라솔 버전의 곡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라는 가사처럼 시청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함께 느껴져 더욱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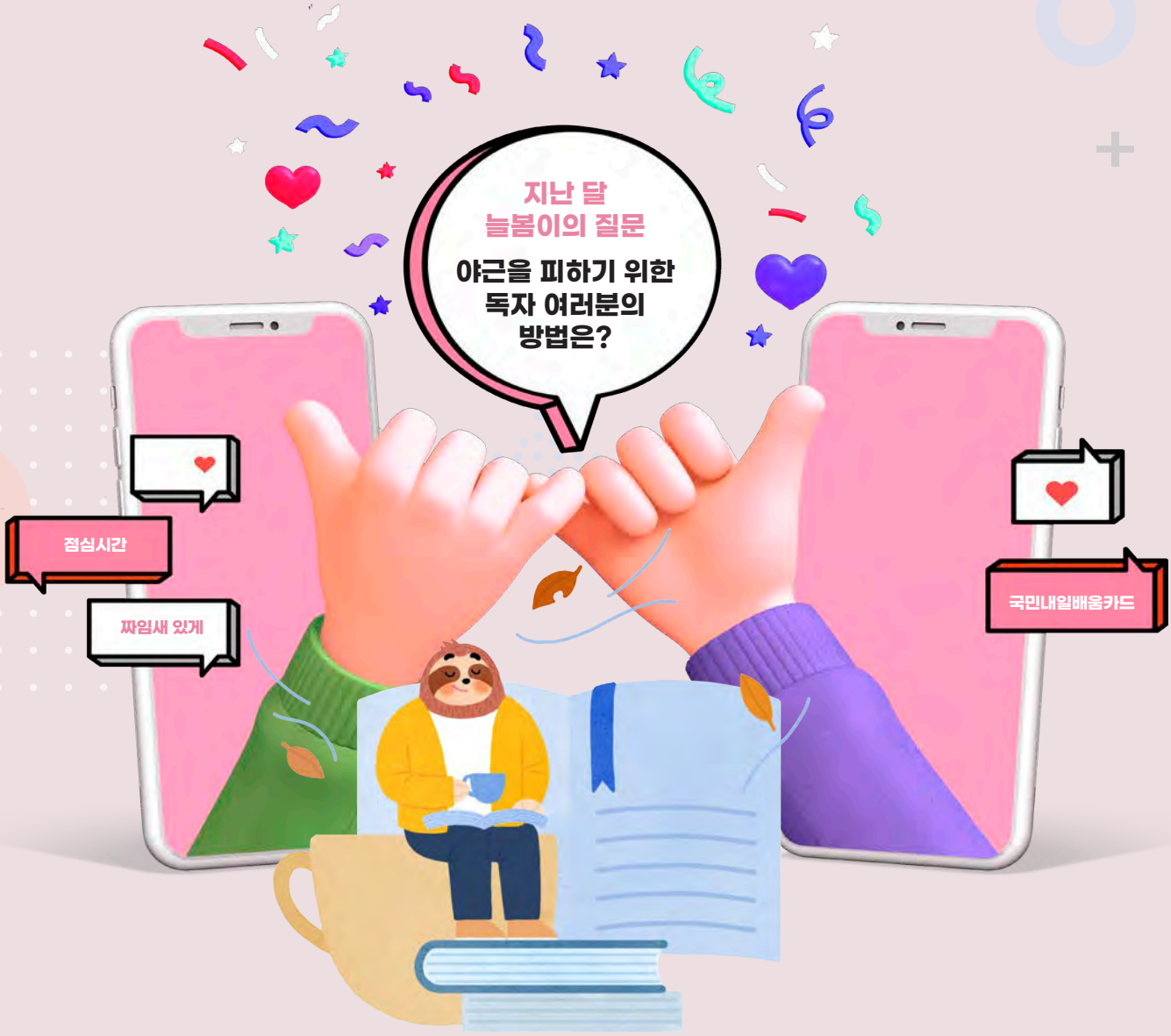
존박 <나이트폴링(Nightfalling)>

웹툰 원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OST 라인업에 가수 존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이트폴링'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곡은 잔잔하게 연주되는 기타 선율과 존박의 담백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극 중 남녀 주인공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노을이 지는 것에 빗댄 가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존박의 목소리가 입혀져 드라마가 가진 감성적인 분위기가 더욱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호소력 짙은 그의 보컬에 빠져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아리 <Reason>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한국형 액션 블록버스터 드라마 <검은 태양>의 메인 OST죠. 가수 요아리가 부른 'Reason'은 액션 누아르 느낌을 한껏 살린 강한 비트와 고독한 멜로디가 단연 돋보입니다. 극 중 배신자를 찾아 처단해야만 하는 주인공의 삶과 음악이 가진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시청자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클라이맥스 때마다 삽입되는 미스터리한 사운드가 듣는 이로 하여금 드라마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들죠. 요아리만의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음색으로 가득 채운 노래를 함께 감상해 보아요.

#내일스타그램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김유미 독자님 FOLLOW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회사의 통근 버스로 출퇴근을 합니다.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야근은 안녕~ 고민타파 칼럼 누구나 해볼만한 고민거리가 나와서 쉽게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해요.

박미희 독자님 FOLLOW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강좌를 수강한다고 하면 발전도 있고, 퇴근 명분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김민우 독자님 FOLLOW

야근을 하지 않도록 시간에 맞게 일을 다 끝내요. 일을 미루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제 때 하다보면 야근은 안하게 되더라구요. 근무시간 안에 짜임새 있게 할 일 다 하기가 야근을 피하는 비법입니다.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편이나 웹진으로
정답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는
애독자 분들의 우수 사연을 선정하여
지면에 공개합니다!

늘 퀴즈 온 더 블록!
'숫자 인터뷰' 편

[23호]

"많은 분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알린 숫자죠"

[16호]

"대학교에서 16학번이라서요."

[20호]

"제가 만든 영상 20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0호]

"이제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니까요"

[???]

위 숫자들은 'people'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꼽은 자신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대변하는 숫자를 꼽는다면, 어떤 숫자를 꼽고 싶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의 일과 삶과 관련된 숫자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우수한 답변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을 선정해 상품을 보내드리고 특별한 답변은 매거진에 게재됩니다.

퀴즈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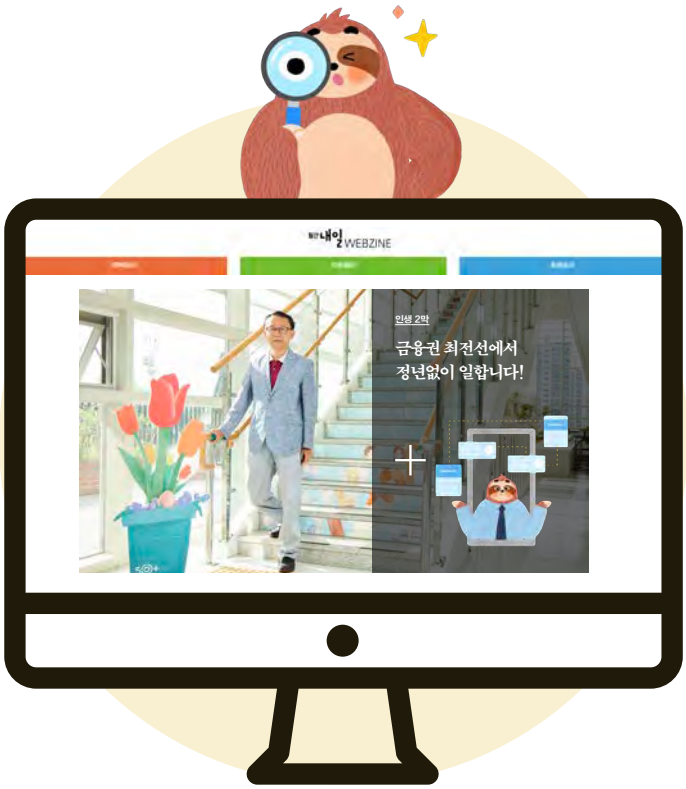
9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민우(8540) / 김유미(9541) / 권종현(0002) / 박태규(6736) / 오혜나(6619)
양두승(0853) / 권영혜(0334) / 윤정희(9638) / 이효섭(6035) / 박미희(8862)

퀴즈 당첨자 분들에겐
10월 마지막주에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❶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❷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❸ 모바일 앱진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